

9조: 신성희, 천상진, 최지웅

일기장 어플

: 영희는 오늘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화가나는 상태에서 저녁 늦게 집에 왔다.
영희는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뒤 휴대폰을 켜서 화가 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한다.
휴대폰 일기장에 상사에 대한 욕과 화가난 마음을 적으며 진정을 한다.
영희는 화가 난 마음을 일기장에 다 풀고나니 그나마 나아진 마음을 가지게 된다.
내일은 더 괜찮은 하루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잠에 든다.

